

사순절 세이레특별새벽기도회

십자가를 바라보라

2021년 3월 15일(월) ~ 4월 3일(토) am5:50 벤엘예배당



가독교 정동제일교회
CHUNG DONG FIRST METHODIST CHURCH

3/15
월

자격 없는 자를 품으시는 은혜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6-24절

김성혁 목사

본문해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동반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고민했던 주제, 즉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과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적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에는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유대인들과 복음을 환영한 이방인들에 대한 메타포가 담겨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선택 받은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야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먹고사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합니다. 이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다시 보내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거리의 빈자와 환자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있는 자 같으나 그들을 자격 없다 하시고, 자격이 없는 자 같으나 그들을 자격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시며, 주님의 넓으신 팔로 자격 없는 자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으며,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임을 믿으며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삶의 주인삼아 살게 하옵소서.

회개와 기쁨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32절

박승준 목사

본문해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목자는 99마리의 남은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애쓸 것이고 그래서 양을 찾으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찾게 될 때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는 돈을 들고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은 모든 돈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저 종으로라도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멀리서부터 달려 나가 맞아줍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여 돌아온 아들을 환대해 줍니다. 처음 두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라는 말씀이며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하는 말로 결말을 맺습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우리가 행한 옳은 행위나 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조건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로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교회와 성도가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17
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찬송 150장 갈보리 산위에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31절

강호근 목사

본문해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성서 내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부자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잇속을 추구하던 청지기는 이런 사실을 부자 주인이 알려진 후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그동안 불의한 일을 통해서 커다란 빚을 지게 한 자들을 모두 불러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또 다른 불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일들을 거둬 행하는 청지기를 책망하기는커녕 그의 행동에 대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칭찬합니다. 더 나아가 주인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영원한 처소로 영접 받는 축복을 누리리라” 라고까지 축복까지 하지요.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상황은 종말의 임박한 때로 이해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 청지기는 종말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거하게 될 복된 처소를 허락받기 위해서 아주 긴밀하고 재빠르게 행동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 초점이 되는 ‘불의한 재물’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모두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부흥의 물결이 온 땅 가득히 임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참된 자세

찬송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0절

박성민 목사

본문해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형제들을 실족시켜 죄짓게 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사에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바로잡아 세우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형제가 짓는 모든 죄가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경우 그를 책망하라고 합니다. 이는 권위 있는 권면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위 있는 책망으로 최악된 행동이 중지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형제가 일곱 번이나 죄를 짓고도 돌이켜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무릇 제자들은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형제들을 기꺼이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무를 뽑아 나무가 바다에 심겨 자라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겸손의 자세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무한한 용서와 믿음, 감사와 겸손이 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참된 자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질병과 경제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난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3/19
금

믿음은 바라봄으로 시작된다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7절

강상원 전도사

본문해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한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과부의 끈질김이 불의한 재판장을 움직였던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상대적 기준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죄인 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돌리는 세상의 일과 자신의 자만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독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삼아 살아가므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3/20
토

예수님의 수난 예고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43절

송기성 담임목사

본문해설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러 열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미 수차례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예언하신 예수님은 더욱 상세하게 고난과 부활을 설명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여전히 감춰져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걸하는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걸하는 맹인이 그 앞을 지나치시는 나사렛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두 번씩이나 외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만류하며 책망하였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맹인이 구하고자 했던 것은 평상시와 같이 몇 푼의 돈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하시는 사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로 점점 가까이 가고 계셨으며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청빙활동 기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영적 평화와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3/22
월

복음이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0절

김성혁 목사

본문해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살펴보면, 나병환자, 맹인, 세리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시각에서는 완전히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을 고치시고 품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로마 당국에 협력하는 배신자로 낙인찍힌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었으며, 관계의 단절과 죽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것에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갈급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곁을 지나시며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시각에서 삭개오는 죄인이고,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 자격 없는 자를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를 통해 은혜와 자비, 회복과 치유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외적인 변화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마음의 혁신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의 은혜 아래 견고히 세워지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양육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찬송 270장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48절

박승준 목사

본문해설

드디어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제자 둘을 보내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시고 나귀에 앉아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겹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어 예수님께서 앉으실 수 있게 하고 또 겹옷을 길에 찢었습니다. 나귀가 감람산 내리막길 끝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성에 입성하시기 전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무지와 미래를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물을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전까지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통일의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통일 후 북한 교회를 섬길 일꾼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3/24
수

주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들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26절

강호근 목사

본문해설

복음서에 나타나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이 진리를 인정할 때, 자신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권세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며, 예수님이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 권세도 없는 자가 성전을 더럽힌다고 모함할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할 경우에는 신성모독 내지는 확인할 수 없는 거짓을 퍼뜨린다는 죄목을 덮어씌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오히려 세례요한 권세는 어디서 온 것이냐는 역질문으로 대답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계락을 정면으로 돌파하셨습니다. 이후 주님께서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여정을 떠납니다. 이후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두 종들을 거둬 보냈으나 포도원 농부들은 이 종들을 심하게 구타하고 쫓아냄으로 주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결국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낼 경우에는 농부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악함은 극에 달했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일을 자행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국 농부들은 주인을 통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며, 포도원은 결코 그들의 소유가 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농부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오늘의 유대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어리석음의 결과는 결국 심판인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이 땅의 교육이 경쟁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교육이 되도록 현장에 있는 교사와 부모를 깨워주시고, 학생을 살리는 교육이 되게 하옵소서.

3/25
목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

찬송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40절

박성민 목사

본문해설

사두개인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찾아와 부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일곱 형제가 있던 집안에 맏며느리가 형사취수법(신25:5-10)에 따라 일곱 형제 모두를 취하고도 대를 이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을 부정하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의도를 직감하시고 두 가지로 그들을 놀랍게 하는 답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논리의 부당성을 지적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오는 시대, 곧 부활의 시대를 현 시대의 연속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부활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사들과 동등하게 될 것입니다(36). 둘째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시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믿음의 조상들의 부활이 필연임을 설명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에 놀라 어떤 서기관은 예수님을 극찬하였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반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여 하나님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3/26
금

남은 자들의 믿음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38절

임희근 전도사

본문해설

누가복음 21장은 계시문학적 성격이 담긴 말씀입니다. 사실 계시문학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인기 있는 분야 중 하나였고, 천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1장이 갖는 독특한 계시문학적 색깔은 바로 실제 역사와 그 역사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는 실제적인 역사를 언급하고 있고, 그 메시지는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신앙과 미래의 희망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인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대한 신앙과 믿음을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은 36-3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한 종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세계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죽고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룰 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면서 예수의 구원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마지막 날의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실업과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는 젊은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낙심하기보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3/27
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예수님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23절

송기성 담임목사

본문해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러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려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나눌 장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머물 장소를 찾을 자세한 방법까지 알려주시며 친히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식사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참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잔을 나누시며 희생에 관해 이야기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맛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주의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떡에 대해 새로운 상징을 만드셨습니다. 이 순간, 유대적인 식사는 기독교적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기념적 행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떡은 공동체를 위해 주셨던 예수님의 찢긴 살을 상징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서 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피에 대한 언급은 이제 다가올 주님의 희생에 의한 죄 사함의 약속이 담긴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와 이 식사에 대한 기억은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에 대해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에 동참하고 공유하는 것은 주님과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으로 확립된 관계를 통해 주님과와의 친밀한 하나 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청빙위원회가 하나님께서 정동제일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목회자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게 하옵소서.

3/29
월

다시 시작하는 힘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34절

김성혁 목사

본문해설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유월절 축제 속에서 마음이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환대로 성에 입성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좌에 오르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논쟁 역시도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얼마만큼의 공이 인정되어 누가 어떤 벼슬에 오르게 될까로 인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고 추구하신 새 이스라엘은 섬김으로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이며,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품는 놀라운 구원이 베풀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보셨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자였으며,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는 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예수님 덕분에 베드로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한 낙망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힘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섬길 수 없으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라를 경영하며 청렴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민족을 올바르게 다스리게 하시고,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계정세 가운데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림으로 이 나라의 평화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신 고난의 길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71절

박승준 목사

본문해설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을 유다와 함께 온 한 무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갑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고발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욕하며 희롱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가 심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를 찾기 위해 질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라고 대답하셨고 공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공회는 그 대답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찾으려 하였고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증거를 분명히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락을 시작합니다. 희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고통과 고난이지만 이제 시작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담담히 맞아들이셨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아내셔야 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열방에 나아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선교사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누구 때문인가?

찬송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25절

강호근 목사

본문해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보면, 그날 그 아침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세상의 모든 악이 대동단결한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 악역은 헤롯입니다. 빛나고 화려한 옷과 중무장한 호위무사들로 둘러싸인 헤롯은, 참되기도 영원한 진짜 왕을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세속적 지위와 부귀영화가 그의 눈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악역을 맡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인준을 받은 실질적인 유대 땅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엔 성난 무리들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압력에 굴복한 불의한 재판관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악역을 맡은 이는, 죄수 바라바였습니다. 그는, 당시 ‘민란과 살인’으로 인해 곧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바라바의 이후 행적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의 대속하시는 사랑과 죽음에 대해서 그가 한 행동과 말이 없다는 것은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정녕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오늘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소명을 잃고 방황하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 되어 교회와 성도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4/1
목

[세족목요일]

십자가 형장에 있던 사람들

찬송 150장 갈보리산 위에

주기도문

누가복음 23장 26-43절

박성민 목사

오늘의 말씀

본문해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있던 자들을 소개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구레네 시몬과 백성들과 여인들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우는 그들에게 돌이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에 큰 심판의 재앙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지도자들과 백성이 합세하여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선고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골, 곧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사형선고를 받은 두 죄수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서 처형된 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이 실현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백성의 죄를 사해 달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자들 가운데는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눠가진 자들이 있었고,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자들과 예수님의 메시아 직에 대해서 조롱과 욕설을 퍼붓는 종교지도자들과 고난받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과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님을 조롱하는 한 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섯 종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한 강도를 봅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으며 구원을 의탁하는 모습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질병과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4/2
금

[성금요일] 찢어진 휘장

찬송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56절

우해광 전도사

본문해설

성소의 휘장은 우리가 집에서 보는 하늘하늘한 커튼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성전 내부의 높이는 40규빗 (약 15m)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초대 유대 전통에 따르면, 휘장의 두께는 약 1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적으로 찢어 질 가능성은 0%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한 마디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구절(눅23:45)에 담겨있습니다. 또한 ‘찢어졌다’는 단어는 헬라어 신약성경 원문을 볼 때도 수동태의 동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이 현상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예배하기 위해 매년 동물을 잡아 죽이고 태우고, 동물의 피를 모으고 뿌리던 번거롭고 힘든 성막과 성전의 종교를 다 없애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중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찢어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사일정의 변화가운데도 학습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예배를 통해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대로 살아나시다

찬송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12절

송기성 담임목사

본문해설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으나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당황해할 때, 두 천사가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인자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천사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 그가 인자로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의 성취로 보았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성취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였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깨닫고 즉시 제자들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전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인들이 열한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천사들에게 들은 말씀과 목격한 빈 무덤을 이야기해 주었으나 제자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빈 무덤과 고난과 부활 예언의 성취를 주장하는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어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즉시 무덤에 달려가 세마포만 남겨진 빈 무덤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고 있는지, 아니면 가벼이 여기며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정동제일교회 21대 담임목사를 찾는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주관하시며 온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거하게 하옵소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CHUNG DONG FIRST METHODIST CHURCH

이름	
직분	
연락처	